



홍보팀

(사)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분석소 검정건수가 월 1,000점을 돌파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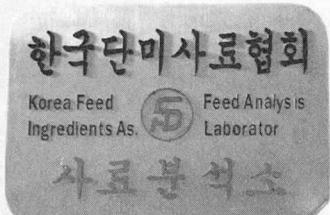
사료분석소는 2007년 1월말 현재 수입사료검정과 자가품질검사·재검사·
료검정 등을 포함, 1,055점을 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.

사료분석소가 사료검정(인정)기관으로 검정업무를 시작한 2002년 2월의
분석건수는 수입사료 검정과 업체의뢰검정을 합해 총 89점.

이후 2002년 월평균 181점을 검정했고, 2003년 월평균 280점(전년대비
187%증가), 2004년 월평균 471점(전년대비 189%증가), 2005년 월평균
684점(전년대비 145%증가), 2006년 월평균 806점(전년대비 117%증가)을
검정하며 점진적으로 내실을 키워왔다.

사료분석소의 직원은 고객지원, 경리·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요원 3명
과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 8명으로 다른 검정기관에 비해 많지 않은 인
력으로 사료관리법에 규정된 검정항목을 검정하고 있다.

특히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 회원사의 요구에 부응코자 각종 국제공인인증
서 획득 및 분석정확도와 대외신뢰도 향상을 위해 미국사료통제위원회
(AAFCO : 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)에서 주관하는



ELISA 등 다량의 분석장비로 사료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Data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.

현재 축산업 및 사료산업은 축산물 수입개방과 한·미간 FTA 체결협상 진행 결과로 축산물 관세의 하락예상과 국제곡물가격의 인상 등 악재가 산재된 상황에서 변화되는 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발전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. 이에 사료분석소 전직원은 새로운 원료의 개발과 제조비용절감방안, 생산공정의 개선 등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사료관련업체가 난관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회원사와 단미·보조사료 및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업체의 사료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에 기여코자 더욱 분발하겠다는 방침이다.

사료분석소 이곤희 실장은 “이러한 성과는 회원사와 단미·보조사료 및 반추동물용섬유질 배합사료 업체의 관심과 도움 없이는 절대 이를 수 없는 결과로, 사료분석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“회원사와 업계 임·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”고 말했다. Ⓛ



▼ 사료분석소의 이곤희 실장(왼쪽 첫번째), 전천석 실장(왼쪽 두번째)과 직원들.

